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 175 호
2021. 12. 10

세션 뉴스레터

Sehsun Newsletter

Contents

캄보디아 김득수 선교사 / 3	세네갈 설재현 선교사 / 6	지부티 조성덕 선교사 / 8
탄자니아 박재덕 선교사 / 12	감비아 유재동 선교사 / 14	미얀마 박순영 선교사 / 17
필리핀 김주호 선교사 / 19	독일 차상원 선교사 / 22	국내선교 석재환 / 25
국내선교 공촌교회 / 29	본부소식 세션회 / 33	후원자명단 / 34



CIS 선교훈련원 강의 후 학생들과(공촌교회)



세션회
Sehsun Global Mission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42-8 세션회관 2층 세션회
T : 02-325-4383~5 / F : 02-325-4382
www.sehsungm.org

발행처 사단법인 세션회 발행일 2021년 12월 9일
발행인 정동수 편집인 김덕수 편집 로열컴퓨터케이션



캄보디아

김득수 이옥란



오늘은 특별한 날

11월 30일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2년여 굳게 닫고 있었던 학교 문을 열고 개방하며 초등학교 교장 50명을 초청하여 “도서관 운영과 독서지도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3시간 지나는 동안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감동을 줍니다. 오래 기다렸던 오프라인의 만남이 피곤한 일이 아니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우호재단과 연계하여 한국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한국 전래동화를 크메르어로 번역 출판과 함께 보급하고 독후감 대회를 가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7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1등 학생과 해당 교장선생님의 한국초청도 하는 행사였는데 코로나 상황의 악화로 초청 행사는 중단되었고 풍성한 상품을 시상합니다.

지난 한 달은 힘겹고 암담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두 차례나 산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물벼락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코로나 돌파 감염에 주운 사모(김성재 선교사)가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격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병실에서 한 주간 격리한 뒤 비용도 부담되었고 호전되기에 자가 격리 2주를 보내며 자가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자가진단 키트 체크를 반복하며 pcr 검사 2회 끝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가 모아지고 돕는 손길에 큰 힘도 얻으며 코로나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고 이겨내는 시간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보낸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이 둘로 나뉘어져 보내는 한 달 가

까이 보낸 시간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수해 복구 작업으로 한 달간 보내면서 대학 캠퍼스는 새롭게 정비 되었습니다. 큰 행사를 열며 코로나 돌파에 편승 대학 교육 정상화에 진입하였습니다. 새로운 도약입니다. 은혜입니다.

바티에이대학

2년간 교육 공백을 잘 소화하면서 온라인 교육을 철저히 하고 학사관리를 하면서 12월 교육이 끝나면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비상입니다. 신학년도 모집은 제대로 등록금을 받는 원칙을 가지고 신입생 모집에 나섭니다. 대학 진학의 열정이 무너져 내린 청소년들에게 진학의 동기 부여가 필요합니다. 먼 미래보다 현재의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단되었던 창업학교 직업 전문학교 과정을 개설 활성화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청년들은 지금 돈이 보여야 하고 일자리가 보여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직업 창출의 창업학교와 일자리를 만나게 하는 기술학교의 다양성을 찾고 있습니다. 대학에 중심을 두고 대학을 든든하게 받쳐 주는 운영에 힘을 갖게 하리라 믿습니다. 2022년 대학의 기반이 잡혀야 미래가 있겠습니다. 기도입니다.

14년의 사역에 획을 긋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공동체 사역으로 방향을 잡고 14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2년의 공백기는 도리어 축복이 되어 사역의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선교나무를 심으며 선교농원 만들기로 보낸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커피나무의 개화시기와 수확시기가 언제인지도 모르며 농원 가꾸기로 보냈는데 어찌 된 것이 꽃이 한 여름에 피기도 하고 봄에 피기도 하더니 요즘에는 여기저기서 커피 꽃이 만발하게 피우며 성급한 나무는 열매를 보입니다. 이리 더운 날씨의 바티에이에서 커피가 된다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두리안이며 아보카도 다른 유실수도 잘 활착하여 자리를 잡았습니다. 얼마 후에는 선교농원에서 수익이 나오며 자립선교의 맛을 조금 맛보게 될 것입니다. 더운 기후에 나온 커피 향과 맛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집사학교 2년 과정을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마쳤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고 열심히 공부하는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주 설교와 Q.T 나눔을 가지는데 어떻게 이리 잘 자랐는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다음 사역자 학교 2년 과정에 들어갑니다.

스텝들은 대학의 정식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법적인 권리와 책임도 생겼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서 자립생활과 자립신앙으로 굳게 서며 집사들의 흠어지는 사역으로 자립교회 세우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뚜얼 선교센터/ 뚜얼 은혜교회

사역자 한 가정이 살 수 있는 숙소가 완공 되었고 예배실과 활동공간도 완공되어 12월에 입주하며 자립교회 세우기 첫 열매인 뚜얼 은혜교회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2층 사택과 자립 방안이 되는 카페 공사는 잠시 멈추며 잠깐 공사를 중단합니다. 자립교회 세우기 동역으로 첫 교회 뚜얼 은혜교회가 절 마무리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사역자도 준비되어 헌신하였습니다. 김원기 전도사와 쌍쪽른 집사는 7월 바티에이 은혜교회에서 결혼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뚜얼 은혜교회를 섬기며 다음 자립교회를 세우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뜨거운 성원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다음은 땅크라상 입니다.

자립교회 세우기로 '바티에이' 군이 예수마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네갈

설재현 이해화 희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라도, 주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고,
그 크신 사랑이 날이 갈수록 깊이 깨달아져가니 하루하루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설 선교사의 코로나 이후, 이 선교사의 귀대상포진, 온 가족이 한 차례씩 아팠던 지난 몇 개월간 저희는 아주 가까워서 '서로 돕는 자'로서의 역할들을 배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이 항상 말씀으로 그리고 이렇게 기도로 돕는 동역자들을 주시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마다 배우고 또 잘 소화시키며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9월 중순에는 최종적인 불어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간 정말 열심을 다해 배운 언어테스트를 잘마치고, 좀 더 흥가분한 마음으로 사역의 실제적인 부분에 더 깊이 관여되어 가는 것이 요즘의 큰 감사입니다. 며칠 전에는 설 선교사에게 아이들 주일 예배 설교 문외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불어로 설교를 하기도 하였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지 청년들과 음악적인 교류를 통해 꾸준히 음악사역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곳 문화에 맞는 복음(참조: HonorShame.com-Resources for Global Ministry)을 연구하면서, 다섯가지의 카테고리로 복음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다섯가지 노래를 작곡하는 이 프로젝트에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지혜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는 12월 18일부터 약 10일 간 저희는 세네갈의 북쪽으로 실제 전체 국토의 절반에 가까운 곳들을 돌며 조사를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각 지역의 주 종족, 인구, 교육 시설, 의료 시설 등을 기본적으로, 그 외에 선교 역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항들에 답을 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곳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아주 중요한 정답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 2년 신입 선교사로서 저희는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서 이곳의 전반적인 문화와 언어 습득의 시간을 잘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세네갈 안에서도 선교사들의 수가 적고 복음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랜 시간 그 곳으로의 부르심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수도보다 환경이 훨씬 어려운 곳인 것은 맞습니다만,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곳이라면 감당 할 힘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리라 믿고,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을 떼어 나아가는 저희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고 있는 현지 무슬림 친구들 Z와 A, 그리고 전 집주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들의 마음 받이 부드러워지며,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예수안에서 형제로 자매로 새로운 관계 형성이 되길 소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린 것 같으나 오랜 시간 이슬람의 영에 사로잡혀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을 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기도 제목

1. 12월 18일부터 진행되는 세네갈 북쪽 방문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가는 곳 곳마다 만나야 하는 사람을 잘 만나고 듣고 보아야 하는 것들을 잘 깨달으며, 세밀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도록.
2. 성탄절을 준비하는 현지 교회의 찬양을 돕기로 하였습니다. 지혜 주셔서 서로 간에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 되도록.
3. 얼마 전, 전 집주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조문을 하였습니다. 할머니께서 많이 상심하시고 힘들어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로 선포한대로 주의 사랑이 이 무슬림 대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그래서 예수안에 새생명이 되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시간이 꼭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부티

조성덕



뵈고싶고 나누고픈 동역자님들께

“코로나때문에”가 “코로나 덕분에..”로 바뀌어지는 이 때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와서 혼돈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건강하시고 교회와 가정위애와 하시는 사업체위에 주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찾아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저로 인하여 코로나가 발생되면 온 교회가 문을 닫아야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던 것을 보면서 자중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격리위해서 집을 빌려주신 노 선교사님, 또 갈릴리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 한국기장총회의 은퇴 여 교역자님들의 숙소인 베다니집은 축복의 장소요 만남이었습니다.

한국에 치아 치료와 몸에 이상이 생겨 걱정이 되어 갔는데 병원에서 들은 소식은 여전히 음식조심하고 족욕을 빠지지 말고 하라고 권하십니다.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CT 검사해보라고 하셔서 검사한 즉 변비가 심하단 소리에든 한국에서 쾌변을 보았기에 걱정을 하지 않고 마지막 떠나기 전에 시각장애인인신 최용진 목사님께 들려서 인사를 들렸는데 이왕 왔으니 진찰해 보자고 하십니다. 약손이신 목사님 손길이 거치면서 변비가 양쪽 배꼽 주변으로 크게 잡힌다고 하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변비로 고생했던 저로서 지금은 참 좋다 생각했는데 이곳

지부티에 돌아온 이후로 궤변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음식에 조심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눈 운동으로 말미암아 시력이 좋아져서 좋다 했는데 요즘 가끔 가물거리는 글을 보며 좀 더 긴 잠을 자기 원합니다. 한국에서 떠날 때 16도, 꽤 쌀렁한 날씨가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데 케냐에 도착하니 22도, 지부티에 오니 34도를 오르내립니다.

지부티 이야기

도착한 다음 날, 천둥 번개가 울리고 비가 밤에 쏟아졌는데 역시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니 학교가 이틀을 문 닫았습니다. 길거리는 물이 넘쳐 강이 생겼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오랜만에 보는 빗물로 인하여 환성을 지르며 더러운 물속을 헤치고 다닙니다. 길가 남의 집 담에 의지하여 상자들을 모아서 집으로 만든 곳에 살고 있는 저희가 후원하는 아이들이 걱정되어 찾아가니 아니나 다를까 비에 젖어 눌러 앉은 천정이 마음 아프게 합니다. 언어장애와 신체장애, 중복 장애자인 '파라'는 이미 제 가방에 손이 들어갑니다. 아뵘싸, 아이들 줄 과자를 안 가져왔네요. 과자가 안 나오니 이번엔 발을 가르치며 신발을 기대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반가워하는 파라의 행동에 저도 기뻐지며 그동안 키가 썩썩 커버린 아이의 모습에 어떻게 더 도울 수 있을까 합니다.

저녁이면 땀띠와의 전쟁으로 잠을 설치는데 이제 파리떼들 까지 달려들어 더 힘들게 합니다. 코로나 사태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선 얼어 죽는 사람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배고파 죽었다는 케냐와는 달리 이곳은 남은 음식을 모두 길거리 아이들이나 빈궁한 아이들이 먹어서 처리되곤 합니다. 날이 더우니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수록 정신병자가 늘어남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래도 이들을 위해 한 끼의 밥이라도 먹어서 아사상태를 면하라며 후원해 주시는 맘(MAM) 선교회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몇 달 만에 오니 문을 꼭꼭 닫았었는데도 먼지가 가득해서 청소만 거의 한 달을 하고 지친 몸을 쉽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시 생겼습니다. 병원이 새로 지어져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에 의사가 돌아오시는데 가족이 많아서 제가 사용하는 집이 필요하답니다. 저 혼자라고 생각하신 목사님이 뒷집이 이미 다 수리되

있으니 그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문제는 저는 혼자이지만 저희 집은 사무실과 아이들 놀이터가 되어 큰 집이 필요했던겁니다. 어떻게 하나 걱정하니 대책이 안 쉽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 갈까 하는데 집세도 비싸고 또 전화와 인터넷, 짐을 싸야한다는 부담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뒷집으로 이사하면 방이 좁아서 활동 역량을 위해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사용하면 되겠다 싶는데 이런 비용들이 6500불을 넘겨서 옮기고 싶은 마음을 가져잡니다.

내년부터 학교를 새로 옮기게 된답니다. 시각 장애, 정신 지체, 언어/청각장애 아동들이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동안 화장실 하나로 40 여명 사용하니 너무 안타까웠는데 적어도 새 학교에는 그렇게 많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화장실이 되어 그립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숙사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역시 시골 아이들은 올 수 없습니다. 계속 점자 이동도서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 바라봅니다. 저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모든 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집세가 비싼 지부티라 우리 땅이 있다면 센터를 지어서 사용하면 더 효과 있게 사용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벌써 몇 년을 각 기관 마다 찾아다니며 땅 달라 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 영부인에게 직접 서류를 내밀 수 있도록 주선해 주셨습니다. 이웃 식구들의 도움으로 불어로 작성하여 이미 넘겼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막상 땅이 나와도 쥐어진 재정이 있는 것이 아니나 땅 주인이건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곳을 통하여 많은 장애인들과의 접촉점이 있고 젊은이들의 자원봉사의 계기를 열어줄 수 있게 될겁니다.

케냐 이야기

소말리아 전쟁은 저희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길자연 목사님께서 케냐에 오면 그래도 쉴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시작한 모금이 저희들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그 센터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만나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케냐에서 동부아프리카의 각 나라들의 영적 리더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떠났는데 이 모임을 책임을 맡아 돌봐주던 형제가 차 사고가 나서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여러분의 기도로 속히 치료되어 퇴원하여 집에서 통원치료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만끽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지부티에서 한 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왕 케냐까지 간 김에 저희 센터에 남아서 나이마를 전격으로 만나고 또한 점자 타자기 수리를 완전히 배워서 학교에 있는 부서진 점자타자기를 고치고 훈련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소말리아까지도 출장을 가서 수리를 가르쳐 주고 오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케냐에 점자 도서관을 세우기 원합니다. 재정이 많이 들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총회가 이 일에 관여하여 건축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소말리아 이야기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맹학교가 소말리아에 생겼다고 보고하는 형제의 말을 증명하듯 전화가 왔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하자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 합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마음만 안타까운데 이들은 처음 시작해서 이렇게 이끌어 주었기에 가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케냐에서 공부하면서 학교의 체재를 배우게 된 교장의 이야기... 모두들 커서 교육에 대한 가치를 알고 결혼하여 아이들을 양육하며 감사를 말하는 이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뿐입니다.

이번 학교는 청각/언어 장애인들과 같이 사용하는데 시각 장애인은 기숙사에 있게 된답니다. 지부티에서도 같이 훈련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책”을 만들어 같이 보급하기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우리 위해 탄생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 가족들과 교회와 성도님들위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1. 영육이 강건하여 맡겨진 일 담당할 수 있도록
2. 케냐와 지부티, 이곳 사역을 맡들어 이끌어 가실 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3. 지부티에 센터가 세워지게 땅을 주실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4. 자원 봉사자가 생겨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사람과 재정이 잘 채워지고 훈련 받는 양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탄자니아

박재덕 이순안 치수 진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
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시편 143편 8절)

고국에서 안식월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7월 중순에 한국에 들어와 14일간 나라가 지원한 호텔에서 격리를
마치고, 8월부터 장석교회 선교관에 머물면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 제한된 만남
이었지만 지방의 여러교회들과 다양한 만남을 통해 섬과 치유, 사역 나눔과 교제
로 풍성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새벽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강건케 하시고, 지금은 전교인
50%의 제한된 인원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께 예
배하니 감사를 가득 올려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든
든히 붙잡고 일상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시길 주님이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지난 10월 23일, 큰 아들 치수와 지현이가 가족과 친척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을
초청하여 기쁨의 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
가정의 출발을 축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탄자니아 교육 사역의 한 부분인 전자독서실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컨텐츠들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고, 현지인학교 교사 교육에 필요한 자료들을 지원해 주실 노벨과 개미 사업 재단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차세대 교육을 위해 앞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MK BEAM 대표 선교사님들과 코로나 시대에 변화된 교육 현장을 준비하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탄자니아 키바하 학교의 존 교장 선생님과 관계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교육 과정을 보고 받으며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공유하게 하셔서 비록 한국에 나와 있지만 현장 사역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기도 하옵기는 탄자니아 워크퍼밋과 비자를 신청 중에 있는데 12월 29일 출국 전에 잘 해결되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키바하 지역에도 여러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덥고 건조한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긴 건기로 메말라가는 대지에 흠족한 단비를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와 격려로 동역해 주시는 믿음의 자녀들께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세션회 웹사이트에서도 PDF 버전으로 세션 뉴스레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sehsungm.org



감비아

유재동 안정순 예령 예을



떠남... 그리고 도착

한국에서의 일들(수술, 만남과 휴식)을 무사히 마치고 추석 연휴 다음날 떠나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비행기라 시간을 여유있게 잡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체크인 창구 직원이 업무경험이 없다 보니 무려 3시간을 막무가내로 붙잡는 통에 선교지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한국에서부터 힘겨웠습니다. 실랑이 끝에 겨우 출발시간에 임박해서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26시간을 비행 후 드디어 반줄 공항에 안착하게 되었는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공항직원조차도 NO-Mask였습니다. 마침내 코로나로부터 해방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선거유세로 인한 교통체증이 그날 따라 심해서 30분이면 충분한 거리를 자그마치 6시간만에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환영식을 길 위에서 치룬 셈입니다

지나간 일들

1년 중에 가장 힘든 달이 10월입니다. 우기가 끝나고 아직 건기가 오지 않아서 고온다습하고 말라리아를 비롯한 풍토병이 도는 때라서 해마다 환자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함께합니다. 선교사 사회에서 흔히 나누는 이야기는 “10월에는 새로운 일을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다만 잘 버티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또한 저희 가정의 경우는 다섯 달 동안 집을 비운 탓으로 온갖 먼지, 도마뱀 그리고 쥐들로

인해 여러 날동안 청소를 해야했고, 예고없이 반복되는 장 시간 정진, 단수로 인해 더위를 견디는 일에 한계점을 넘나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건기에 들어선 요즘은 제법 살 만 합니다. 그렇지만 한 낮의 온도는 여전히 36도 이상입니다.

사역지 이야기

저희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학생들은 지도자의 인도에 따라 변함없이 성경을 읽고, 쓰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예배와 각종 모임 또는 기도회에도 충실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사역지에 돌아와 신체검사를 해 보니 모든 학생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많이 컸고 어린 티를 벗었습니다. 하도 기특해서 어느 주일 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바닷가 소풍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 유세로 여러 곳에서 들썩 거립니다. 12월 4일에 치뤄지게 되는데 6명의 후보가 나와서 저마다 당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요 간선도로가 수시로 막히고 시장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갑니다. 최근들어 이전 물가에 비해 두 배이상 상승했고 앞으로도 무 대책 같습니다. 20여년을 이 땅에서 살아 왔어도 현지인들의 사고를 아직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낮의 더위 때문인지 어두워져야 집회가 시작되고 수 많은 대여한 차량들로 지원 인력들을 실어 나릅니다. 유세장 주변은 그야말로 무질서의 극치 같은 장면이 속출됩니다. 듣기로는 선거를 앞 두고는 물가 통제를 선거 후로 미룬다고 하니...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딱한 현실입니다.

여러행사들.

신학년이 시작되었고 그동안 기다려 왔던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이 사역은 참 보람이 있기에 앞으로도 계속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소망을 심어 주는 꿈나무 키우기와

같습니다. 그간 장학 혜택을 받았던 몇몇 대학생들이 이젠 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있고 선택받은 중.고등학생들이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성경쓰기를 마친 학생들을 격려하고 시상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학생들마다 상금에서 십일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주일학교학생 대상으로 후원 결연이 시작되어 교회 사역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뻐했던 일은 한국 선교단체에서 보내온 후원 물품을 나누는 행사였습니다. 그동안 소원해 오던 축구 운동복을 받은 청년들과 각종 속옷을 받게된 남.여 학생들이 아주 좋아 했습니다. 마지막 행사로는 식량나누기인데 현지 목사를 통해 가장 가난한 가정을 찾아내도록 하여 생활에 필수품인 쌀을 구입하여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일단은 믿는 가정을 우선으로 하여 나누어 주되 현지 목사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받는 가족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손길을 느끼고 고백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저희 부부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써 주님의 온전한 도구요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 풍성한 감사와 기쁨으로 올 한 해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3. 대통령 선거가 사고 없이 공정하게 잘 치뤄지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준비중인 연말행사 성탄발표회, 신년 전도행사 등이 은혜 중에 진행되어서 큰 보람과 힘께 결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4. 가족들의 평안과 건강을 소원합니다. 노모님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얀마

박순영



오늘은 비가 내리네요. 지난 8여 년 간은 늘 따뜻한 12월과 크리스마스를 지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 시국과 올해는 미얀마의 쿠데타로 인해 올 크리스마스도 한국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특별입국 허가를 받고 9월 28일 미얀마 입국 예정이었으나, 우리 기숙사 청년들이 군부에 의해 체포됨으로 미얀마 입국을 잠시 늦추게 되었습니다. 그간 청년 피신 자금 지원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시국이 불안한 즈음에 외국인인 제가 센터에서 지내거나, 자주 나타나면 현지의 청년들에게도 부담을 주니 입국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기숙사 청년과 주일학교 학생 체포당함

지난 9월 11일 밤 기숙사 청년 옷동산과 켄소렛이 군부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유는 시민방위군 군사훈련을 받았고, 집안에서 다수의 무기류가 나왔으며, 다른 청년들에게 총기류의 사용법을 가르쳤고, 양곤 시내 몇몇 곳의 폭발사건에 가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함께 훈련 받았던 텃두라는 체포를 면하고 모처로 피신했습니다. 청년들이 시민방위군 군사훈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군부정권의 반대 시위를 격렬하게 해오던 중 마지막 시위장소에서 17명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군사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청년들은 체포가 되어 모처의 군부기관에서 심문을 받고 9월 24일에 “메야와디” 국방 TV에 그들의 신상과 체포 경위 및 발견 물품 등이 사진과 함께 방송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마음만으로 참여한 이들을 군부

가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조직도 안에 범죄자의 모습으로 그것도 켄소렛은 고문을 받은 일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또 하나의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인 니니나잉(17세)이 살인혐의를 받고 얼마 전에 기소가 된 것입니다. 니니나잉은 부모님이 모두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주일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예배 시간에 기타 반주로 도와줄 만큼 열심히 친구였습니다. 미얀마의 쿠데타 이후 니니나잉도 위의 청년들과 함께 시위에 참석하기도 했는데, 청년들이 군사훈련을 받으러 가게 되니, 니니나잉은 학교 서클에 가입하여 시민방위군에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는 학교의 여선생님이 군부를 위해 열심히 당원이었는데, 이에 시민군 쪽에서 총격으로 사살을 했고, 주변이 누군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학생의 이름이 노출이 되면서 살인자로 누명을 덮어 썼습니다. 그래서 함께 했던 친구들 4명과 함께 살인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아직 고등학생이고 어린아이에 불과한 이들에게 군부에서 이렇게 인권을 말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자리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미얀마의 청년들과 시민들이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고 정신을 놓지 않고 잘 견디며 버텨주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부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주기만을 언젠가는 반드시 민주화의 새벽은 온다는 것을, 대한민국도 잘 버티고 버텨 민주화를 이룬 것처럼 미얀마도 반드시 민주화가 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김주호 김한나



.....
살롬! 늘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함께 힘써 가시는 귀한 세션회 동역자님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로 어려움에도 신실한 기도와 재정으로 선교에 함께 동
역하고 계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1. 한국에서의 삶과 사역

필리핀 입국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곧 12월부터 그린 (Green) 국가로부터는 무비자 입국을 허락한다는 공식적인 정부 발표가 있었습
니다. 한국은 아직 필리핀 정부가 황색(Yellow) 국가로 지정해놓아 대상이 되지
는 않았음에도 점진적으로 풀리는 것 같아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적 변이 발생 상황에 따라 며칠 만에 다시 무비자 입국 허가 발표를 철회하였습
니다. 15년 넘게 머물렀던 필리핀 그곳이 왜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운지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기억할
때 주님의 섭리를 때론 불만스럽게 바라보는 자신에 대해 회개하게 됩니다.

2. 필리핀으로 물건 배송(2021.10.18)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한 번 필리핀으로 물건
을 배송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현지 사역
을 돕고 싶어 저희의 십일조와 모아둔 재정, 이
곳저곳 후원해주신 분들의 물품들을 배송하였



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총 8박스를 보내어 다섯 가정 한국 선교사님 가정 물품 후원과 한 가정 필리피노 사역자 가정을 현금으로 도왔습니다. 재정이 조금 남아 12월경 세 가정 정도 물품을 한 번 더 보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 두 가정은 전원 코로나 확진 후 회복 중인 가정이라 약소하지만, 한국 식품 등을 통해 입맛을 찾으시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보내게 되었습니다.

3. 아내 김한나 선교사의 필라테스 사역

(한국 CCC편지 9월 본 관련 내용 일부 발췌)

“죽으로도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해보자!” - 선교사 비자가 만료되어 잠시 한국에 들어왔는데, 코로나 19로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던 중 2020년 12월, 필리핀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 모임과 코칭 모임을 진행했던 아기 엄마 3명과 한국에서



재회했어요. 한국에서의 근황을 나누던 중에 한 친구가 필라테스 공부를 시작한 걸 알게 됐어요. 원래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발레도 하던 친구였어요. 필라테스를 시작한 뒤로 아픈 허리가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필라테스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같이 모였던 아기 엄마 2명도 필라테스를 하고 싶어 했고, 이왕 시작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죽으로 수업을 진행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Beautiful Girl 헬스클럽’이 시작되었고, 시작 첫 달에 20명 정도의 회원이 모집됐어요. 그런데 트레이너로 섬기는 아기 엄마가 돈을 받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다른 선교사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70여 명 정도의 회원이 운동을 함께하고 있어요. 운동을 지도해 주는 트레이너 선생님과 회원 관리를 담당하는 분들은 이렇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해요. 우리 모임의 회원은 주로 사역자 혹은 사모님이세요. 사모님들이 ‘몸이 건강해졌다, 통증이 사라졌다’라는 피드백을 주실 때 저희 팀원 모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사실 사역자나 사모님은 마사지 한번 받는 것

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사역자, 사모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떤 사모님은 이 사역을 평생 해달라고 하시는데, 트레이너 선생님이 그만두지 않으신다면 이 사역도 계속되지 않을까요?

일반인에게 한 달 15,000원, 목회자 및 선교단체 회원 가정은 달 10,000원을 받은 회비는 일부 운영비 제외하고, 매달 한 가정씩 선교사님들 후원. 현재 아홉 가정 후원. 잠비아, 미얀마, 필리핀, 짐바브웨등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집중하며 살다 보면 어느새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돼요. 길가다 만나 단기선교를 권했던 친구도, 필리핀에서 만났던 3명의 아기 엄마도 모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날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그때 주시는 마음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셨어요. 필리핀 유학생 사역도, 'Beautiful Girl 헬스클럽' 사역도 그 열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 평생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4. 기도 제목

- 1) 필리핀은 현재(2021. 11. 30 기준) 누적 283만 명의 확진 중 4만 8천 명의 사망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주님 긍휼의 손길로 속히 방역체계가 세밀하게 갖춰지게 하시고 더 이상의 사망자를 막아주시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게 하소서!
- 2) 최근 필리핀 선교사님들 사이에 코로나 확진과 건강에 관련된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어느 국가나 해외에서는 외국인이 치료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질병도 치료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부디 주께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다시 힘쓸 수 있게 하옵소서!



독일

차상원 정진희 지혜 명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독일의 차상원 선교사입니다.

요즘 이곳의 날씨는 0~5도 내외로 초겨울 날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위한 응원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몇 가지 소식들을 전하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독일의 코로나19 상황

현재 독일은 소위 '위드 코로나'가 진행 중이며 일일 확진자 수는 약 5만 명 내외입니다. 한국의 일일 4천명대와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이며, 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럽은 그야말로 코로나 '4차 대유행'의 바람이 세계게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에서는 원인으로 낮은 백신 접종률을 꼽으며, 특히 청년들이나 어린이들 가운데 감염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당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올리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으며,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불이익과 불편함이 있도록 조치) 동시에 독일 질병관리청은 소위 부스터샷 (3차접종)도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에게 접종할 것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와 저의 아내 정진희 선교사는 약 6개월 전 2차 접종을 받았기에 오는 12월에 3차 접종 예약을 해 놓고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대중교통에서는 접종을 받은 증명서를 소지하거나,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 증명서를 소지해야 탑승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장인들은 동일한 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회사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일부 지역에서는,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음성 확인서를 인정하지 않고 오

직 백신접종자나 감염 후 회복된 사람들에게만 입장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현재 모든 시민들이 백신을 의무로 접종해야 하는 ‘의무접종제도’ 또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독일의 보건부 장관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감염률이 올라가면 부분적 봉쇄조치도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예년이면 지금쯤은 열렸을 성탄 마켓들도 올해는 상당수 취소되어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코칭 세미나

코칭 세미나가 지난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IMB선교사로 활동하셨던 석정문 목사님의 지도로 성경적인 목회 코칭의 이론과 실천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1부 ‘자신을 변화시키는 코칭’, 2부 ‘세상을 변화시키는 코칭’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감과 힘을 공급받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3. 제자훈련 세미나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에서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제자훈련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나 자신이 먼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서야 함을 깨닫고 제자훈련의 여러 이론과 실제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4. 카페교회 상황

저희 다민족 카페교회는 현재 온라인(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 다시 카페에서 현장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5. 새로운 비자발급

저희가 이곳 외국인청에 비자 연장 신청을 했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왔는데, 순적하게 새로운 비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급되는 비자는 저와 저의 아내가 동일한 향후 3년간의 비자입니다.

6. 형제의 소식

저희 카페교회의 성도인 파키스탄 출신 쿠슈누드 형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이곳 프랑크푸르트 대학원 석사과정을 공부하여 이제 전 과정을 거의 마무리하고 논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형제가 논문을 잘 마무리하고 이곳에서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형제의 형편을 알기에 얼마 전 이 형제를 카페로 초대하여 미약하지만 소정의 장학금을 저희 카페교회의 이름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파키스탄에 계신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12월 초에 파키스탄으로 부모님을 찾아뵈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독일에서 파키스탄으로 가는 왕복 항공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물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쿠슈누드 형제님도 이 티켓비용을 받고 크게 감동하였고, 자신도 앞으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겠노라고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7. 난민들을 위한 독일어 교실

우리 지역 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섬기고 있는 독일어 교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3회씩 오픈하여 제가 꾸준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입장 전, 백신 접종여부를 체크하여 백신접종자만 입장이 가능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하며, 손 소독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난민들과도 허심탄회하게 교제하며 때로는 난민들의 언어(페르시아어)를 배우기도 합니다. 독일어는 주로 중, 고급 수준의 시사, 뉴스 내용을 다루면서, 때로는 독일 원어민 선생님과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가족들의 영육강건/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에 지치지 않도록
2. 다민족카페교회 및 난민사역/내년 사역계획 위해
3. 제자양육사역 및 전도대상자들
4. 독일어의 진보(독일어 고급 자격증 취득)
5. 자녀들(지혜, 명철)의 건강, 학업, 진로 등
6. 한국어 교실 사역을 위해



제주선교(캠퍼스)

석재환 이은영 보경



살롬~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찬양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선교편지를 씁니다. 최근에 저는 '기억의 공격'이라는 책을 보면서 세상엔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로 인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자신도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픈 기억들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나를 공격할 때 아프고 힘이 들었습니다. 동역자님은 어떠셨는지요? 과거의 기억 때문에 힘들어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그냥 그것을 꼭꼭 숨기고 묻어둔 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나 자신이 변화되고 있지 않는 것은 과거의 아픈 기억과 상처로 자신을 계속 속박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아픈 기억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Share faith(다른 사람들과 믿음을 나눕니다)

11월 21일은 청주 HCCC 동문 홈커밍데이를 줌으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만나지 못하지만 줌이라는 인터넷 도구가 있으니 해외에 있는 분들과 전국에 흩어진 동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세종시로 이사한 성섭, 정숙 순장의 집이 진행 본부가 되었고 근방에서 모일 수 있는 사람은 함께 얼굴을 보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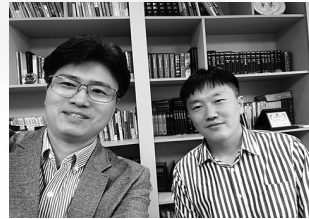
Hug people (선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을 포용합니다)

제주 성산에 있는 동남교회에서 사역할 때 만난 5총사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러 잠깐 방문했는데 큰 아이



들은 잠시 외출했고 3명의 아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엄마들은 아이들을 버리고 갔고 아빠는 아이들을 혼자서 돌볼 수가 없어서 방치하여 아이들은 보호시설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5명이라 서로 의지하고 시설에서도 잘 지낸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코로나 동안에 방문을 못하였더니 아이들이 훌쩍 커버렸습니다. 저도 가끔 방문해서 돌아보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과 미안함이 있습니다.

서울 세션회 본부를 방문하여 총무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친절하게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계심이 마음 깊이 느껴졌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Inspire yourself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영감을 얻습니다)

제주에서 힐링을 하려면 오름을 가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구좌에 있는 '아부오름'(앞에 있는 오름)을 오르는 길목에 한쪽에 소들이 평화롭게 햇볕을 쬐며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며 쉼과 회복의 시간, 사색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소와 같은 우직함이 제게도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가고 있는 길의 방향이 옳다면 멈추지 말고 가는 것이 소의 우직함이라 생각합니다.

Njoy (enjoy) fellowship (교제하며 주변사람들과 즐깁니다)

사역동역자들과 전화 통화나 문자, 카톡으로 소통하는 것은 언제나 기쁘고 일입니다. 오랜 만에 통화를 하게 되고 목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도제목을 듣게 하고 문자나 카톡으로 멀리 있는 사람과 소통한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겠지만 저와 관계된 분들이 각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들으며 위로를 받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Equip others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청주에 방문하여 초등학교 선생님을 40여년 만에 만났습니다. 너무 뒤늦게

만났다는 생각도 든 것이 제 담임이셨던 남편 선생님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셔서 손자들을 보고 계신 선생님이 아직까지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신 것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과 식사하며 함께 교회 이야기도 하고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주변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11월 27일 토요일 제주 크리스천 청소년 연합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 차세대 선교센터에서 주일 오후 10여명의 아이들과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 순수하게 찬양하는 마음이 너무 귀하고 예뻐니다.

사역 이야기 / 특별한 이야기

송실 사이버대학교 2학기 청소년 코칭 상담학과 수업

이번 학기 21학점을 신청해서 그런지 많이 버겁고 벅찬 감이 있었습니다. 매주 강의를 들어야 하고 중간 중간에 퀴즈와 과제를 하다 보니 어느새 기말고사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그렇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만날 청소년들을 생각하니 기대도 되고 공부를 통해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 주시는 아이들을 잘 돕고 그들이 성장하고 회복되기를 기도해주세요!

샤인 사역팀

샤인 본부팀과 함께 세계기도의 날에 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어 감사하고 제가 여기서는 제일 나이 많은 선배이니 후배들도 잘 챙겨주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이분들에게 매월 후원을 걱정했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십시오. CCC 안에서 청소년 사역을 책임지고 있는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청소년 사역자 모임(전국, 제주)

용인에 있는 다산 개발원 사무실에서 11월 청사협 모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 불씨운동의 마상욱 목사님이 쓰신 '어쩌다 부모' 책도 얻었네요.



제주지역의 청소년 사역자들이 삼성초 근처에 위치한 차세대선교센터(권은숙 강도사)에서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 속에서 제주의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일을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주는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입니다’

제주도는 무속신앙과 미신이 사람들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곳입니다. 한라산 산신제와 풍어를 기원하는 풍어제, 입춘 굿과 새별 오름에서의 들불축제, 마을마다 동네마다 있는 지내는 마을제와 가정마다 제사 문화가 있고 해변과 오름 등지에는 돌탑을 쌓고 촛불을 켜놓고 신을 섬기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그런 신을 섬기는 18,000여개의 신당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정신적 질환이나 육신적인 질병을 귀신에 의한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당을 찾아 굿을 하고 점을 치고 제사를 하면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와 두려움을 이용하여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통제하고 복음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갖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제목

- ① 송실사이버 청소년 코칭 상담학과 2학기 수업을 마무리하며 기말고사(12월 7-14일)도 잘 마무리하게 하소서.
- ② 제가 속한 SHINE (CCC 청소년 사역 전담부서)의 간사들과 2022년의 사역 방향을 잘 정하고논의하고 계획할 때 지혜를 주옵소서.
- ③ 한 달 동안 쉬고 다시 시작하는 졸업한 제자들과의 온라인으로 순모임이 더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 ④ 청주에 사는 여동생 남편(김성훈) 당뇨로 신장이 안 좋아져서 신장이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동생의 신장을 남편에게 이식하려고 하는데 이식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 ⑤ 매일 1시간 이상 동역자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사역동역자들과 영적으로 소통이 이뤄지며 더욱 교제가 풍성하게 하소서.



공촌교회

최고수 목사



들어가는 글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조금 풀리는가 싶더니 요즘은 코로나 확진자가 말할 수 없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회 전체를 더 긴장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겨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모이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 공촌교회는 지난 10월부터 모든 예배를 정상화하였습니다. 주일 낮예배, 오후예배, 주일 오전 교회학교예배는 우선 성경부만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요일 현장예배는 계속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금요일기도회도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아직 인원은 모두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시작했으니 점차적으로 회복될 것이라 봅니다. 아울러 지난 3개월간 저희 공촌교회와 저의 사역을 전합니다.

1. CIS 선교훈련원 강의

현재 국내에는 구소련연방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와 기타지역의 고려인들이 약 8만 2천여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현지에서 선교사님들에 의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려운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한국 선교사님들의 열매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의 능력 앞에는 무슬림들의 철권 정치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감탄했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복음사역자

로 헌신하여 국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된 숫자도 꽤 됩니다. 제가 관여했던 러시아 개신교 교단만 하더라도 40여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새빛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서 그 교단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CIS기독교회라는 노회를 구성하여 신학교와 선교훈련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 선교훈련원에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2천년대 초창기 저희 공촌 교회에 대하여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소통이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15명 정도로 시작했는데 10주 과정에서 후반기에는 20여 정도 늘어나 강의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1차로 끝나긴 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2. 전주 선교역사탐방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선교에 대한 열정에 다시 도전을 주기 위하여 선교동원 전문가이신 이용남 선교사님께서 한국 초대교회 선교역사 투어를 계획하시고 1차로 24명의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전국 투어로 계획하셨는데 첫 번째로 전주와 전북지역을 하셨습니다. 그 뒤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으로 계속 순회하셨습니다. 저는 전주 전북지역에만 차량봉사를 위하여 합류했습니다. 투어 팀은 먼저 전주 안디옥 교회를 필두로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이 세운 전주 신흥 중 고등학교, 전주 서문교회, 예수병원 의료 박물관, 선교사 묘지를 탐방하며 선교에 대한 도전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1890년대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선교사님들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선교하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미국 남장로교의 '7인의 선발대'는 1892년 9월 7일 파송예배 후 한국으로 출발해 여선교사인 리니 데이니스가 10월에, 테이트, 레이놀즈, 전킨 남선교사와 매티(테이트의 누이), 볼링, 레이번(전킨의 부인) 여선교사로 구성된 나머지 6인은 11월 3일에 한국 제물포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7인의 개신교 개척 선교사들을 통해 호남 선교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가슴 아리도록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전킨 선교사님의 가족 스토리는 그냥 맨눈으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킨 선교사님은 세 아들을 모두 이 땅에 물으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두 살 때, 둘째 아들은 두 달 만에, 그리고 셋째 아들은 생후 20일 만에 풍토병 전염병 등으로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전킨 선교사님 본인도 47세의 젊은

나이에 풍토병으로 순교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생명이 이 땅에 밀알이 되어 이 강산을 복음으로 물결치게 하셨습니다.

3. 몽골 어린이집 건축 지원

공촌교회는 매 주일 오후예배에 줌으로 참석하는 몽골 “에제니 알다르 교회” 할류나 목사님이 어려운 기도제목을 부탁하였습니다. 현재 교회가 너무 낡아 울란바타르 시로부터 철거 명령이 내려져 다 철거를 하고 거기서 나온 벽돌과 자재 일부를 사용하여 새로 건축을 시작했는데 비용이 없어 건축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희 공촌교회는 기도 하는 중 교인들이 조금씩 헌금을 하여 65만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몽골 다문화 가정 임병길 간사의 아들 임기쁨 돌 선물 75만원을 건축비로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다행히 그 돈으로 지붕과 외벽, 창문까지는 마무리 했는데 내부 마무리와 일부 공사를 못하고 날씨가 추워지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첫돌을 맞이하는 임기쁨이 자기 돌 선물 전체를 몽골교회 건축을 위하여 드려줬다는 것은 큰 은혜였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가면서 몽골의 “에제니 알다르(주님의 영광교회)”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기도할 것이라고 미래를 내다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공촌교회와 몽골 교회들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더욱 단단하게 묶여지는 것 같습니다.

4. 다니엘 기도회 참여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전 세계 연합으로 다니엘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 연합기도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모두가 집에서 줌을 통하여 찬양하며 간증을 듣고 기도하였습니다. 시간 시간마다 간증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큰 은혜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특히 몇 가지 소개하자면, 최길영 대표의 “기도의 법칙”은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라, 그리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그가 잘 나가던 1타 강사에서 천 길 낭떠러지로 추락했을 때 그를

일으켜 주고 다세 세워준 것이 바로 매일 한 시간 무릎 꿇는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에 큰 반점으로 부모에게도 버려져 고아원에서 외롭게 힘들게 자랐던 “김희야 집사” 어떻게 세상에 승리할 수 있었는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힘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특히 성악가로 성공하고서도 그 성공에 가려져 버린 내면의 주님을 향한 지정한 사역을 사모했던 강내우 대표는 자기와 같은 간절한 섬김을 사모하던 전국의 찬양사역자들을 모아 버스킹(길거리 연주)을 만들어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류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품고 있었지만 단 한 가지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맺음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다니엘 기도회 통하여 얻은 은혜는 기도의 회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하기 좋은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연말연시 하나님께 특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12월 한 달 새해 준비를 위해 작정기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침마다 시간을 정하고 성경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년 새해 1월 한 달도 새해 한 해를 위하여 똑같이 특별기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튼 연말연시 이 두 달은 온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는 힘차게 시작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 중요한 연말을 이렇게 기도하며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제목

1. 공촌교회 대면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 몽골인 예배에도 몽골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2. 한국 어린이와 몽골 어린이들이 속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3. 몽골 “에제니 알다르 교회” 건축이 잘 마무리 되도록 위하여.
4. 담임목사인 제가 기도로 잘 무장하여 연말과 2022년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본부소식

1. 네파 의류 기부

지난 11월 10일 (주)네파를 통해 여름 의류 6,046장(64박스)를 후원받아 해외 5개국 여덟 분의 선교님들의 선교지로 보내드렸습니다. 후원해주신 (주)네파와 물품 발송을 위해 수고해 주신 박순영 선교사님과 김수연 학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보내지는 의류가 선교현장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기 소망합니다.

2. 박재덕(이순안)선교사 장남 결혼

지난 10월 23일 박재덕, 이순안 선교사님의 장남 박치수 군이 가족 친지들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축하합니다.

3. 세션회 협력선교사 본회 방문

국내의 교사님들이(박재덕(이순안), 유재동, 조성덕, 박순영, 석재환) 세션회를 방문하여 그간의 선교보고와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4. 본회 직접 선교 후원

아래와 같이 국내외 선교지에 후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션회가 선교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후원자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전자도서관 후원(박재덕)
- 현지학생 장학금 및 지붕공사비 후원(유재동)
- 교회건축비 후원(정석훈)
- 공촌교회 화장실 이전 후원
- 페루 김태식 선교사 급식비 후원
- 군인교회 성탄절 간식비 후원
- 국내 교회 난방비 후원(군인교회, 공촌교회, 내백교회)
- 정동철 선교사 웅가 나눔 후원
- 미얀마 교회 건축 후원(김균배)

후원자 명단

2021년 9월

임원헌금
선교후원금
조성덕선교사

김예상 김희성 박도준 정동수 최영인 최일신 홍은경
고명지 석세일
lgdp신우회 갈렙청년부 권오현 기장총회 김남훈 김복실 김연정 김윤민 김경기
남공현 노병인 대현교회 박성하 박영덕 산돌중앙교회 석태임 신교숙 신반포교회 안경옥
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 음토토아프리카 이수복 이재원 이홍은 임정식(박보현) 임춘옥 장삼열
장옥규 장희 전경자 전주동부교회 제주영락교회 조영국 조요한 주영아 최경숙 퇴계원교회
홍제성(신경숙)

김득수선교사
정석훈선교사
박재덕선교사
아룬다스선교사

비산동교회 세션회 아돌람세계선교회 이시영 주평강교회 참빛누리교회 인도차이나선교회
세션회
박현정 유성수 이은영 이형순 이혜정 정태희 허윤경 황선미
박형건

2021년 10월

임원헌금
선교후원금
조성덕선교사

김예상 김희성 박도준 정동수 최영인 최일신 홍은경
고명지 에이치더블유아이
lgdp신우회 갈렙청년부 강인자 권오현 기장총회 김남훈 김아영 김윤민 김윤민 김혜숙
대현교회 대현교회 지부티목장 무명 박명숙 박보애 박영덕 산돌중앙교회 석태임
송도좋은교회 신반포교회 안경옥 유임근 윤경애 음토토아프리카 이명순(정병도) 이수복
임정식(박보현) 장희 전경자 전주동부교회 정보영 제주영락교회 조자경 최영자 최인혁
최정숙 퇴계원교회 홍제성(신경숙)

김득수선교사
박재덕선교사
아룬다스선교사

비산동교회 세션회 아돌람세계선교회 이시영 인도차이나선교회 주평강교회 참빛누리교회
박현정 예담교회 유성수 이은영 이정희 이형순이혜정 장석교회 정태희 허윤경 황선미
박형건

2021년 11월

임원헌금
선교후원금
조성덕선교사

김예상 김희성 박도준 정동수 최영인 최일신 홍은경
고명지 (주)네파
lgdp신우회 갈렙청년부 권오현 기장총회 김남훈 김동권 김아영 대현교회 박보애
박성하 박영덕 산돌중앙교회 석태임 신반포교회 안경옥 애능중앙교회 음토토아프리카
이수복 이정수 임정식(박보현) 전경자 전주동부교회 제주영락교회 조자경 주영아
최정숙 홍제성(신경숙)

김득수선교사
정석훈선교사
박재덕선교사
아룬다스선교사

비산동교회 세션회 아돌람세계선교회 이시영 인도차이나선교회 주평강교회 참빛누리교회
세션회
박현정 예담교회 유성수 이은영 이형순 이혜정 장석교회 정태희 허윤경 황선미
박형건

세션 뉴스레터

Sehsun Newsletter

통권 175호

발행처 사단법인 세션회

발행일 2021년 12월 10일

발행인 정동수

편집인 김택수

편집 로데미커뮤니케이션



▲ 필라테스 사역을 시작한 김하나 선교사(우측 2번째)

세션회 조직

이사장	정동수
부이사장	최일신 최영인
이사	김애원 김예상 김희성 나영주 박도준 오영찬 유동윤 정케이티(김경식) 홍은경
자문위원	박형중 석세일 오세철 홍달천
감사	권태균
총무	김택수

협력선교사

인도	유동윤(유형난), 아룬다스(타나살린)
캄보디아	김득수(이옥란), 정석훈(최소영)
미얀마	김균배(최기숙), 박순영
지부티	조성덕
케냐	정동철(이미림)
감비아	유재동(안정순)
세네갈	설재현(이혜화)
탄자니아	박재덕(이순안)
독일	차상원(정진희)
필리핀	김주호(김하나)

국내선교

공촌교회 내백교회 군 선교(김용화) 석재환(이은영)

후원방법

- KEB하나은행 164-890002-77504 / 국민은행 032 - 25 - 0003 - 114
 - 신한은행 100 - 017 - 544191 (예금주: 세션회)
-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25-4383)

세션회 웹사이트에서도 PDF 버전으로 세션 뉴스레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sehsungm.org

사단법인 세션회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실천적 생활 훈련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복음화에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따라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도록 사회에 기여 봉사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1990년에 설립되어 선교사를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